

On the pronunciation of Hanja based on Gujang Sansul Eumeui

구장산술음의에 비추어본 한자의 독음에 관한 논의

KOH Youngmee 고영미 REE Sangwook* 이상욱

Ancient books from East Asia, especially, Korea, China and Japan, are all written in Chinese. Ancient mathematical books like 九章算術 (Gujang Sansul in Korean sound, Jiuzhang Suanshu in Chinese) is not exceptional and also was written in Chinese. The book 九章算術音義 (Gujang Sansul Eumeui in Korean, Jiuzhang Suanshu Yinyi in Chinese), a dictionary-like book on 九章算術 was published by official 李籍 (Li Ji) of 唐 (Tang) dynasty (AD 618–907). We discuss how to pronounce Chinese characters based on 九章算術音義. To do so, we compare the pronunciation of the characters used in the words which are explained in 九章算術音義, to those of the current Korean and Chinese. Surprisingly, the pronunciations of the Chinese characters are almost all accordant with those of both Korean and Chinese.

Keywords: Jiuzhang Suanshu Yinyi, Gujang Sansul Eumeui; 九章算術音義; 구장산술음의.

MSC: 00A20, 01-00, 01A25, 01A99

1 서론

《황제내경(黃帝內經)》¹⁾의 「소문(素問)」 제 1 편 상고천진론(上古天真論)에

法於陰陽 和於術數(범어음양 화어술수)

라는 말이 나온다 [4]. 이는 옛사람은 건강하게 천수를 누리는데 지금 사람은 그렇지 못함에 대한 연유를 묻는 황제(黃帝)의 질문에 대한 당시의 천사(天師)였던 기백(岐伯)의 답이다.²⁾

*Corresponding Author.

KOH Youngmee: Dept. of Math., Univ. of Suwon E-mail: ymkoh@suwon.ac.kr

REE Sangwook: Dept. of Math., Univ. of Suwon E-mail: swree@suwon.ac.kr

Received on Jun. 6, 2016, revised on Jun. 19, 2016, accepted on Jun. 24, 2016.

1) 《黃帝內經》은 태고의 여진 제왕이었던 황제(黃帝)의 질문에 당시의 천사(天師, 왕의 스승을 의미)였던 기백(岐伯)이 답한 내용을 담고 있는 동양의학서로서 「소문(素問)」과 「영추(靈樞)」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권은 81개의 편(篇)으로 나뉘어 있다. 「소문」은 1편 상고천진론(上古天真論)으로 시작하여 해정미론(解精微論)까지 81개의 이론(論)으로 구성되어 있고, 「영추」는 81가지 증상에 대한 처치법을 다루고 있다.

2) 「素問」 1.1. 昔在黃帝, 生而神靈, 弱而能言, 幼而徇齊, 長而敦敏, 成而登天。乃問於天師曰: 餘聞上古之人, 春秋皆度百歲, 而動作不衰; 今時之人, 年半百而動作皆衰者, 時世異耶? 人將失之耶?

여기서 나오는 한자(漢字) 한 자 한 자는 《구장산술(九章算術)》 등과 같은 동양산학서에서 자주 나오는 수학적으로도 의미를 갖는 글자들이다. 그런데 한자의 사용은 한자문명이 오랜 역사를 지녔듯이, 시간과 공간에 따른 시대적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저자는 [2]에서 산서에 사용된 법(法)과 술(術)의 의미와 변화에 대하여 논한 바가 있다. [2]에서는 《목자》와 최석정의 《구수략》을 따라, 도(道)가 자연현상으로 드러난 것을 수(數)라 하고 수(數)의 용(用)을 법(法)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여기서는 중용(中庸)에 나오듯이 천명(天命)을 따른 도(道)가 자연현상으로 드러난 것이 법(法)이고, 그 법(法)에 따라 나타나는 오행이 술수(術數)이며 술수를 조화롭게 활용함이 화(和)의 뜻으로 사용되었다.³⁾

이와 같이 한자로 쓰인 산학서를 포함한 동양고전을 바로 읽기 위해서는 책이 저술된 시대와 상황을 고려하며 글자 한 자 한 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訓, 훈)를 바로 파악해야만 한다. 한자는 일정 시기에 모든 글자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시대에 따라 많은 국가에 의해 축적된 글자이다. 실제로 중국은 왕조가 바뀔 때마다 왕조를 세운 민족도 바뀌어서 글자와 음도 바뀌었다고 한다. 그래서 한자의 음과 뜻을 바로 잡기 위한 목적을 가진 학술 활동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훈고학(訓詁學)이다. 특히 훈고학은 음을 중시하는데, 음에 따라 한자의 뜻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훈고학은 한(漢)대에서 당(唐)대까지 성행했던 학문사조로서 유학경전 및 고대경전을 올바르게 읽으려는 노력이었다 [8].⁴⁾ 그러므로 훈고학은 동양 상고사(上古史)를 들여다 볼 수밖에 없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 역사계에서도 우리나라 상고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⁵⁾ 우리나라 상고사에 대한 논의는 단재 신채호의 《조선상고사》 [3]가 대표적이지만, 오래 전에 발간된 정다운 스님의 소설 《정감록》⁶⁾도 있고, 저작의 진위 논란의 중심에 있는 《환단고기》⁷⁾도 포함된다. 그와 관련하여 한자의 기원에 대한 논의도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⁸⁾ 한 예로, 진태하 교수⁹⁾는 「한자는 우리의 조상 동이족의 글이다」라고 주장한다.¹⁰⁾ 그러나 한자는,

1.2. 岐伯對曰：上古之人，其知道者，法於陰陽，和於術數，食飲有節，起居有常，不妄作勞，故能形與神俱，而盡終其天年，度百歲乃去。今時之人不然也，以酒爲漿，以妄爲常，醉以入房，以欲竭其精，以耗散其真，不知持滿，不時禦神，務快其心，逆於生樂，起居無節，故半百而衰也

3) 술수(術數)는 역경(易經)과 하도(河圖), 낙서(洛書)의 기록이 말하는 수리적 자연현상을 의미한다.

4) 漢대의 훈고학은 《논어》를 중시한 데 비하여 당(唐)대의 훈고학은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5) 이선민(조선일보 선임기자), '식민사관'과 '사이비 역사학', 동서남북, 조선일보 기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4/2016041400012.html. (2016.4.18.) 이선민(조선일보 선임기자), 上古史 논쟁, 양식과 틀을 지키자, 동서남북, 조선일보 기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6/22/2016062203473.html (2016.06.23)

6) 정다운 스님, 소설 鄭鑑錄, 명리, 1996. 정다운 스님은 정감록의 원래 이름이 井堪錄이라고 말한다.

7) 안경진 역주, 환단고기, 상생출판, 2012. 《환단고기》는 1911년 운초 계연수 선생이 묘향산 단굴암에서 일제의 총칼을 피해 발굴한 역사 원본들을 엮어 만든 책이라고 한다.

8) 진태하 교수(인제대), 中 학계 "한자는 동이족 문자 ... 한국만 몰라",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75706>. (2011.04.17). 성훈(칼럼리스트), 중국이 주장하는 한자의 기원은 명백한 역사왜곡, http://www.londontimes.tv/sub_read.html?uid=974.

9) 박혜경, 陳泰夏, <http://politics.ntu.edu.tw/RAEC/comm2/InterviewTaehaJin.pdf>

10) (국학원) 국민강좌 87회 진태하 인제대학교 석좌교수 - 한자는 우리의 조상 동이족의 글이다. <https://>

《한비자》나 《여씨춘추》 등의 기록에 따르는, 상고시대에 살았던 창힐(蒼頡)이 만들었다는 주장이 일반적이다 [8]. 한자의 기원을 동이족에 두는 진태하 교수도 대부분의 한자는 한족이 만든 것임을 부인하지 않는다. 한자의 기원¹¹⁾에 대한 관심은 소설가 김진명에게도 소재 거리를 제공했다 [1].

훈고학의 대표적 결과물로는 《이아(爾雅)》¹²⁾나 《설문해자(說文解字)》¹³⁾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일종의 사전이었다 [8].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구장산술음의(九章算術音義)》도 일종의 훈고학적 경향을 지닌 책자로 볼 수 있다. 즉, 《구장산술음의》도 《구장산술》을 바로 읽기 위한 사전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구장산술음의》를 들추어 보려는 본 논문도 한자에 대한 논의를 목적으로 하며, 궁극적으로는 《구장산술》을 올바르게 읽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그러나 본 논문은 우선적으로, 한자의 기원이나 사전적 내용이 아니라, 《구장산술》에 사용된 고전 시대의 한자의 독음에 관한 논의로 제한하고자 한다. 차후에 기회가 된다면 《구장산술음의》에 설명된 한자의 뜻도 음과 함께 정리할 계획이다.

저자는 《구장산술》을 읽으며 현대 중국어로 쓰인 글을 읽기보다는 옛 고전이 더 읽기 편하다는 느낌을 경험하였다. 그래서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에 재직 중인 고대 한자를 연구하는 한문학자에게 저자의 그러한 느낌이 자연스런 느낌인지를 물어보기도 했다. 저자의 질문에 대한 그분의 답은 그 분도 「공감한다」는 것이었다.

본 논문은 《구장산술음의》를 기준으로 삼아 그것이 설명하는 용어들의 각 글자들의 발음에 주목한다. 특히 그들 발음을 현대 중국어 발음과 우리말의 발음과 비교한다. 중국어 독음의 비교에는 「네이버 중국어사전」¹⁴⁾과 「다음 중국어사전」¹⁵⁾을 활용하였다 [5, 7]. 본 연구가 한자문명권의 고대 동아시아에서의 문명의 흐름에 대하여 어떤 의미있는 정보를 제시할 수 있을런지 저자도 확신할 수는 없지만, 본 논문이 수학사 또는 동양 상고사 연구에 아주 미미하더라도 의미있는 한 줌의 기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www.youtube.com/watch?v=CEWY6_oNE3I 진태하 교수는 북경대 창립 100주년 국제학술대회에서 「한자의 기원과 동이족」이라는 제목의 논문 발표를 했고, 중국학자들의 인정을 받았으며, 그러한 사실이 1998년 11월 1일자 「人民日報」에 기사로 실렸다고 한다. 진태하, 漢字的淵源과 東夷族, 亞世細亞學報 제 19집 (1996), 사단법인 亞世細學術研究會.

11) 진태하의 논문 「한자의 연원과 동이족」에 따르면 「漢字」라는 명칭이 《遼史》나 《金史》에도 나오지만, 구체적인 의미를 밝힌 글은 《元史》兵志에 「漢字, 漢族人之文字也, 對蒙古文字而言」이라고 한다.

12) 《이아(爾雅)》는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유의어 사전이자 언어 해석 사전이다. <https://ko.wikipedia.org/wiki/>

13) 《설문해자》는 한자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는 필독서로서 유교 경전을 이해하기에 필요한 한자와 용어에 대한 참고서라고 한다. <https://ko.wikipedia.org/wiki/>

14) 네이버 중국어사전, <http://www.naver.com> (2016.4.18.)

15) 다음 중국어사전 http://dic.daum.net/index.do?dic=ch&t_nil_site=chdic (2016.4.18.)

2 구장산술음의 비추어본 한자의 독음

2.1 구장산술음의

《구장산술(九章算術)》¹⁶⁾은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동양산학의 비조이자 모태로 동양산학 연구의 기본서이다 [6]. 《구장산술(九章算術)》은 유휘(劉徽)가 쓴 序(서)와 方田(방전), 粟米(속미), 衰分(쇠분), 少廣(소광), 商功(상공), 均輸(균수), 盈不足(영부족), 方程(방정), 句股(구고)의 9개 장(章)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나라 때에도 《구장산술》의 이해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였고, 그러한 활동에 의한 결과 중 하나가 이적(李籍)이 편찬한 《구장산술음의(九章算術音義)》(이하 《음의》라 칭함)이다.

《음의》는 《구장산술》에 사용된 용어의 사전식 해설서이다. 《음의》는 《구장산술》 序에서 10개 용어, 1장에서 38개, 2장에서 20개, 3장에서 16개, 4장에서 14개, 5장에서 32개, 6장에서 25개, 7장에서 16개, 8장에서 16개, 9장에서 12개 용어로 총 199개의 용어에 대한 음과 뜻을 풀어주었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해설을 덧붙였다. 설명할 용어는 큰 글자로 쓰고, 그에 대한 설명은 작은 글자로 써서 구별하였다. 글자의 크기로 본문과 그에 대한 주(注)를 구분하는 방식은 고대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방법이다.

음(音)을 설명하는 방식은 《설문해자》에서 사용한 방식을 따르고 있다. 즉, 한 개의 한자의 음을 독음을 알고 있는 두 개의 한자의 반절음을 합한 음으로 설명한다. 다시 말해, 두 개의 한자 중에 첫 한자에서는 초성 또는 초성과 중성을 따고 두 번째 한자에서는 중성 또는 중성과 종성 또는 종성만을 따서 주어진 한자의 독음을 나타낸다.¹⁷⁾

예를 들어, 《음의》에 첫 번째로 설명된 용어는 序에 나오는 九九之術(구구지술)로

九九之術: 食律切 術者 有所述也

와 같이 음과 뜻이 설명되어 있다. 그리고 「前漢 梅福傳 臣聞 齊桓之時 有以九九見者 桓公不逆 欲以致大也」(이하 생략)와 같이 해설도 추가되어 있다. 여기서 食律切이 術에 대한 음의 설명으로 食(식)에서 초성 「ㄱ」을 따고 律(율)에서 「ㄹ」(또는 「ㄱ」)을 따서 만들어진 「술」(또는 「술」)로 術의 발음을 설명한다. 이렇게 앞뒤 글자의 음을 적절히 잘라 붙여 발음함을 의미하는 것이 글자 切이다.

이 예에서는 네 글자 용어 중 한 글자에 대해서만 음을 설명하였지만 네 번째로 나오는 「探隲(탐색)」의 경우는

探隲: 上 吐南切 下 土革切 (이하 생략)

16) 구장산술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dataType=0201&contents_id=E0006006

17) 초성, 중성, 종성은 한글의 글자 구성 요소를 말하기에, 고대 한자에 대하여 적용할 수 없는 용어나 본 글에서는 용이한 의미전달을 위해 그러한 용어를 사용한다.

처럼, 두 글자에 대한 음을 上, 下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참고로 《음의》는 세로쓰기로 편집되었음을 상기한다. 또한, 어떤 경우는 음이 같은 다른 한자를 제시하기도 하는데, 2장에 나오는 「菽」이 그러한 예로 「菽: 音叔 大豆也」와 같이 설명되어 있다. 또한 1장의 「廣: 如字闊也」처럼 如字로 음을 설명하기도 한다. 훈고학에서는 글자의 음운 정보를 중시하는데 음에 따라 뜻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음을 如字로 설명함은 여러 음을 가진 한자의 경우에 그 한자가 가지는 파생음이 아니라 본음에 해당하는 음과 뜻을 사용한다는 의미이다.

용어의 뜻을 설명하는 기본 문형은, 위의 「術」의 예에서 보듯이, 「...者 ...也」로 「...은 ...이다」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주어에 해당하는 「...者」는 생략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九九之術 다음으로 나오는 용어 隸首(예수)와 九數(구수)를 보자.

隸首: 郎計切

世本日 黃帝時 隸首作數

九數: 色具切 卽 九章是也

以算言之 故曰九數 以篇言之 故曰九章

周官保氏教國子 以六藝 一曰禮 二曰樂 三曰射 四曰馭 五曰書 六曰數

鄭康成注云 九數 方田 粟米 差分 少廣 商功 均輸 方程 贏不足 旁要

今有 重差 夕桀 句股

隋書律歷志云 一曰方田以御田疇界域 二曰粟米以御交質變易 (이하 생략)

이 예에서 보듯이, 隸首처럼 용어의 뜻에 대한 설명이 없이 추가적 해설만을 주는가 하면, 九數처럼 卽으로 주어를 대신하거나 아예 생략하기도 하고, 해설을 길게 자세히 덧붙이기도 한다. 이때 《음의》는 이전에 편찬된 많은 고대서적들을 인용한다. 위의 예에서만도 《세본》, 《수서》 「울력지」 등이 인용되었으며, 書名을 적시하지 않았지만 《예기》에 담긴 六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용만을 인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본 글에서는 용어의 뜻에 주목하기보다는 각 한자의 음만을 다루려고 하기에 용어의 뜻을 설명하는 방식에 대한 이 이상의 논의는 생략한다. 단지 참고로, 《음의》가 인용한 책들을 일부 나열하자면, 시경, 서경, 역경(주역), 예기(주례) 고공기, 춘추 좌씨전, 목자 호령편, 관자, 맹자, 사기, 수서 경적지, 수서 울력지, 당육전, 석명, 이아, 광아, 설문해자, 손자산술 등 다양하다. 단, 대표적 유학서인 《논어》의 인용이 없음이 특이한데, 이는 唐대 훈고학의 특징이기도 하다.

2.2 구장산술음의에 비추어본 한자의 독음

《음의》에는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총 199개 용어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다. 《음의》에 설명된 이들 199개 용어 중에 序의 九九之術, 1장의 大廣田, 2장의 小麴大麴(소적대적), 3

장의 北鄉算, 4장의 祖暅之(조궁지), 5장의 冬程人功, 7장의 盈不足과 之蜀賈(지촉가)의 8개 용어를 제외하고는 모두 한 자 또는 두 자로 된 용어들이다. 이들 용어를 한 자 한 자 따로 떼어 보았을 때, 음이 설명된 글자는 序에서 13개, 1장 42개, 2장 22개, 3장 16개, 4장 18개, 5장 37개, 6장 26개, 7장 16개, 8장 18개, 9장 13개의 글자로 총 221개의 글자에 달한다.

《음의》에 독음이 설명된 221자 중에는, 術을 食律切처럼 《설문해자》식 풀이를 제시한 것이 대부분이지만, 1장의 廣(광), 何(하), 經(경), 乘(승)처럼 독음의 설명을 「如字」로 한 것이 있는가 하면, 量(량)을 「音亮」으로 亮(량)자와 같은 음을 가짐으로 설명한 것도 있다. 독음이 두 가지로 중복 설명된 글자도 있는데,

序에서 率: 所律切 數相與也 又 音律 約數也

2장에서 交質의 質: 陟利切 又 如字

7장에서 和漆의 和: 如字 又 胡臥切

등 세 개가 있다. 그리고 6장의 箛(팔)은, 비록 이 경우뿐이긴 하지만

箛: 括同 箛足受弦處

과 같이 설명을 하여, 箛이 括의 음과 뜻을 갖는 같은 글자임을 설명하였다. 다음 표 <Table 1>은 《구장산술》의 각 장에서 《음의》가 위에 언급한 다양한 방식으로 독음을 설명한 글자의 수를 나타낸다.

설명방식 \ 장	序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切	13	34	15	12	16	34	24	14	18	13
音...	(1)	7	2	3	1	3	1	2		
如字		6	(1)	1	1			(1)		
...同							1			
합계: 221	13(1)	42	22(1)	16	18	37	26	16	18	13

<Table 1> The number of characters in the chapters classified by the types of explanation; 설명방식에 따른 글자 수 (괄호 안 숫자는 중복 설명된 글자 수)

참고로, 독음이 설명된 글자가 두 번 또는 세 번 중복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세 번의 중복설명이 나오는 乘(승), 除(제), 行(행), 程(정)의 네 글자를 포함하여, 數, 重, 差, 御, 廣, 從, 乘, 除, 合, 參, 課, 易, 衰, 折, 行, 漚(참), 馬, 程, 輪, 惡 등의 20개 글자이다.

이상에서 알아보았듯이, 《음의》에서 독음을 설명한 221개 글자 중에서 「...切」의 방식으로 독음이 설명된 193개 글자의 독음을 현대 중국어 발음 및 한글 발음과 비교하여보기로

한다. 이때, 중국어 발음에서 편의상 평성, 상성, 거성, 입성 등의 성조를 말하는 사성(四聲)은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음의》에서 「如字」로 설명된 한자는 자신의 본음을 의미하기에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同」식으로 설명된 하나뿐인 글자 箎(팔, 중국어 발음 kuo)은 설명「箎: 括同」에서 보듯 한글 발음 「括(괄)」과 중국어 발음 「括(kuo)」와 모두 잘 맞아떨어지며, 「音...」의 방식으로 설명된 글자들도 2장의 繫(착)만 그 독음의 설명「繫: 音作」에서 보듯 초성의 발음이 「ㄷ」과 「ㅈ」으로 약간 차이가 날 뿐이고¹⁸⁾ 나머지 18(+1)개의 글자들은 현행 한글 발음과 현대 중국어 발음에 잘 맞아떨어진다.

이제 「術: 食律切」처럼 「...切」의 방식으로 반절음의 합으로 독음이 설명된 193개 글자들을 알아본다. 예를 들어, 「術: 食律切」을 한글로는 「식+울=술 > 술」로 써서 비교하고 중국어는 독음을 빌어 「shi+lu=shu>shu」와 같이 나타내어 비교하였을 때, 한글의 경우, 앞 글자의 초성 또는 초성과 중성, 뒷 글자의 중성, 중성과 종성 또는 종성만을, 그리고 중국어의 경우, 앞 글자의 앞 부분과 뒷 글자의 뒷부분을 적절히 잘라 붙여 발음하였을 때 원래 주어진 글자의 독음과의 일치도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 경우, 그 독음이 기계적으로 잘 맞아 떨어지는 것은 A, 약간 음이 달라지는 것, 예를 들어 「ㄲ」이 「ㄱ」이 된다던가, 「ㄱ」이 「ㅎ」 또는 「ㄷ」이 「ㅈ」이 된다거나 하는 식으로 약간의 독음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는 B, 독음이 현행과 제법 차이가 나는 것은 C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한글의 경우, A는 111개, B는 66개, C는 17개였다. 그러나, 序의 「度: 徒各切」이나 2장의 「糲: 慮達切」처럼 일반적 음과는 차이가 나지만, 예를 들어, 度의 「법도도, 헤아릴 탁, 살 택」 등의 세 가지 음의에 대한 설명¹⁹⁾을 고려하면 일치도는 더욱 올라간다. 특히 독음의 지정은 뜻을 지정함을 의미하기에, 한자의 사용에 대한 《구장산술》에서의 정확한 뜻을 정의함을 의미한다. 이는 한자의 뜻을 고려한 《음의》의 추가 연구가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된다.

중국어의 경우는 글자가 없어 평가하지 못한 글자가 7개로 한글보다 5개가 더 많았다. 남은 186개의 글자를 현행 중국어의 발음과 비교한 결과, A는 99개, B는 76개, C는 12개였다.

특히, 한글과 중국어 공히, B로 평가된 글자들도 시대가 변하면서 복모음이 단모음으로 발음이 단순화되고, 자음도 구개음화 등 약간의 변화가 발생했음을 고려하면 唐나라 시대의 발음과 현행 발음이 꽤 잘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단, 맞아떨어짐은 실제 소리가 같다는 것이 아니라, 발음체계가 같다는 의미이다. 한자의 음이 다른 한자의 발음의 반절음의 합으로 표현되었을 때, 현재의 한자의 발음이 그러한 음의 설명 식을 만족시킨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았을 때, 한글의 경우, 당나라 시대의 한자의 독음을 현행과 비교하였을 때 약 92%의 글자의 독음이 맞아떨어지고, 중국어의 경우도 약 94%의 일치도를 보인다. 단,

18) 繫는 네이버 중국어사전과 다음 중국어사전에서 검색이 되지 않아 비교하지 못하였다.

19) 度에 대한 음의 설명은 徒故切, 徒落切, 直格切 등이 있으며 여기서는 徒落切로 읽어야 함을 설명한 것이고, 「糲: 慮達切」도 糲의 세 가지 음 力制切, 落蓋切, 慮達切 중에 慮達切로 읽으라는 설명이다.

중국어의 일치도가 조금 더 높은 것은 중국어의 경우, 초성, 중성, 종성의 구분이 없이 앞뒤 부분을 적절히 잘라 붙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²⁰⁾ 그러나 특이한 사항은, 당대의 발음과 현재의 발음(체계)이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한글과 중국어에 공통된 글자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다음의 1장에 나오는 몇 개 글자의 예를 보자.

合: 考沓切 (한글: 고+답=갑 > 합; 중국어: kao+da=ka > ge (또는 he))

參: 楚金切 (한글: 초+금=츄 > 참; 중국어: chu+jin=chin > can (또는 shen))

差: 楚宜切 (한글: 초+의=칙 > 차; 중국어: chu+yi=chi > chi)

이와 같이 한글과 중국어가 발음이 많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당대로부터 한자의 독음의 변화가 거의 같이 일어나고 있음은 시사점이 크다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연구를 고려함은 가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결론

우리는 唐代(618년~907년) 말에 편찬된 《구장산술음의》에 나오는 용어들의 한자들의 독음을 현행 한글과 현대 중국어의 발음과 비교하여 보았다.

《음의》는 漢代(기원전 206년~220년)에 편찬된 《구장산술》에 대한 용어의 사전에 해당하는 서적으로 唐代의 훈고학적 산물이다. 《음의》의 편찬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적어도 1000년 이상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당시의 독음과 지금의 발음(체계)이 제법 많은 차이가 나야만 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비교 결과 당대의 한자의 독음과 현행 한글이나 현대 중국어의 발음과 90% 이상의 높은 일치도를 보인다. 또한 발음의 일치 정도가 다소 떨어지는 글자의 경우도 전혀 다른 발음이라기보다는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되었거나 어찌면 다른 뜻을 나타내기 위한 파생음을 설명한 것을 본 저자가 간과한 것이 아닐까 하는 정도이다.

한글의 발음이 1000년 이상 전의 한자의 독음(체계)과 일치함도 매우 신기하지만, 서로 다른 발음 체계를 가진 한글과 중국어가 공히 같은 한자들에 대한 독음의 일치 정도를 90% 이상으로 갖는다는 것도 정말로 신기한 일이다.

사실, 진시황제의 가장 큰 업적은 중국의 통일이지만, 진나라 이전에 다양한 형태의 글자가 있었던 한자의 형태를 통일한 것도 그의 큰 업적이라고 한다. 한대와 당대에 들어 훈고학이 융성하게 된 이유는 글자 형태는 같아도 그의 발음이 지방(국가)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당대에 편찬된 《음의》 하나만을 비교한 것이기는 하지만, 한글과 중국어가 공히 《음의》에 설명된 독음과 일치하는 방식의 발음 체계를 가지고 있음은 매우 신기하다.

20) 음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한자의 반절음은 일정하게 정의되어야 함이 원칙일 것이다. 본 글에서는 반절음에 대한 음의 정의를 다소 느슨하게 적용하였다.

이러한 신기한 결과의 발생 이유는 무엇일까? 훈고학에 따른 많은 사전류의 서적에 나오는 독음에 일치하도록 자국의 발음을 조정하지 않고는 가능한 일일 수 없을 것 같다.

《음의》 하나에 따른 한글과 중국어 발음의 비교로, 고대 동양사회에 (전쟁을 포함한) 문화 또는 문명 교류에 대한 어떤 의미를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문화교류 등에 관한 동양의 상고사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이해가 없이는 한글과 중국어 발음이 《음의》에 나오는 한자의 독음과 일치함은 다소 설명하기 힘든 결과가 아닌가 싶다. 아마도 이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대한 보다 면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만 같다.

감사의 말. 본 논문은 익명의 심사자 분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많은 조언의 큰 도움을 받았습니니다. 저자들은 훌륭한 지적과 조언을 주신 심사자 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References

1. KIM Jin Myung, *The War of Characters*, 2015. 김진명, 글자전쟁, 2015.
2. REE Sangwook, KOH Youngmee, On the publication of Hong JeongHa's Gulljib, *Journal for History of Mathematics* 28(5) (2015), 233–248. 이상욱, 고영미, 홍정하의 구일집의 저술에 관하여, *Journal for History of Mathematics* 28(5) (2015), 233–248.
3. SHIN Chae Ho, PARK Ki Bong (tr.), *The Ancient History of Joseon*, BiBong Publisher, 2013. 단재 신채호 원저, 박기봉 옮김, 조선상고사, 비봉출판사, 2013.
4. ZHANG Ji Cheng(張其成), *Huangdi Neijing(黃帝內經), Reading Human Bodies*, Translated by OH SuHyeon, Panmidong, 2015. 장치청, 오수현 옮김, 황제내경, 인간의 몸을 읽다, 판미동, 2015.
5. Daum Chinese Dictionary, 다음 중국어사전. http://dic.daum.net/index.do?dic=ch&t_nil_site=chdic (2016.4.18.)
6.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2016.4.18.)
7. Naver Chinese Dictionary, 네이버 중국어사전. <http://www.naver.com> (2016.4.18.)
8. Wikipedia Korea, 위키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